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소고



글 · 오 석 준

한강성심병원장

대한병원협회 표준화·수련위원장

의료기관평가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당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라는 명칭으로 2001년까지 보건복지부 예규 제604호에 의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후 2002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47조의2(의료기관평가, 본조신설 2002.3.30)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 실시하기로 규정됐으며, 의료법시행령(본조신설2003.8.9) 제20조(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에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2004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병원협회 표준화 및 수련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병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기관평가에 대하여 병원계의 자율적인 참여와 신뢰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원론적인 긍정적 답변 외 행정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4년 초에 대한병원협회는 학계에 연구용역을 주어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험 평가한 서비스평가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의료기관평가서를 개발하도록 추진하였다.

2004년 4월 8일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의료기관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의료기관평가 지침서 개발이 위임되었다. 4월 26일 1차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부터 6월2일 4차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까지 많은 논란을 거쳐 의료기관평가서의 큰 골격인 진료 및 운영체계 및 부서별 업무성과와 환자설

이번 의료기관평가에서 경험했듯이 병원계 스스로 중지를 모아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병원계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타의에 의해서 변화가 강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그리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신뢰받는 병원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문으로 구분하도록 결정하였고,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병원협회 평가서 개발팀과 보건산업진흥원 평가서 개발팀이 2박3일간 평가서 통합작업을 시행하였다. 6월 6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실무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약 150개 항목의 의료기관평가서를 일부 보완하여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7월 13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대한병원협회 내에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7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8월 13일 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의료평가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제기한 의료기관평가서를 채택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의 평가요원 선발과 평가계획을 의결하였고, 금년도 평가에 관한 분석과 내년도 의료기관평가서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계획을 의결하였다.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요원을 대상으로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2004년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표준화 및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료기관평가 사업의 의료기관평가위원과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그 동안 느꼈던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의료기관평가에 관하여 많은 찬반논란이 각계분야에서 뜨거웠기 때문에 찬반의견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하는 측은 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준을 평가해야 하고, 평가를 통한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반대하는 측은 의료는 광범위한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왜곡된 지식을 가진 일부 전문가나 정부의 강압적인 평가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저수가 정책의 현 건강보험 체제하에서는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논의 과정 중에서 일부 각 단체대표들의 의견들을 피력한다면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료기관평가 후에 알려질 순위에 관심이 많았

고, 또한 분야별 순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목적에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환자들의 집중에 따른 많은 부작용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료기관평가에 참여하여 그동안 의료관련 분쟁 및 불만증가에 대한 현장 확인의 기회를 갖고 싶어하였으며, 이번 의료기관평가의 설문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일부 의료계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의료의 질을 연구하는 학계는 의료기관의 입장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룹과 의료기관에 불신을 갖고 개혁을 요구하는 그룹으로 양분되어 있는 양상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원으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평가인 것이다.

금년에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는 대부분 그동안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표준화신임평가를 받았던 병원들이고 과거에 의료기관서비스평가의 시험평가를 경험했던 병원들로 많은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시행될 중소병원들의 평가는 병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최근에 대한병원협회는 표준화 및 수련교육부를 병원신임평가센터로 확대하여 수련교육팀, 신임평가팀과 연구개발팀으로 개편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바 있어 내년부터는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이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변화의 추세로 보아 병원계는 자율적으로 병원 규모별, 종류별로 표준화 사업을 확대하여 대한병원협회의 모든 회원병원들이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표준화 사업에는 진료의 내용과 과정을 포함한 체계적인 모델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병원의 표준화사업도 계속해서 연구되어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양질의 적절한 의료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 개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의료기관평가에서 경험했듯이 병원계 스스로 중지를 모아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병원계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타의에 의해서 변화가 강요될 우려가 있다.

국내의 의료계는 예측할 수 없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과 경쟁 속에 놓여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 등 수많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그리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신뢰받는 병원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